

“붓들면 호랑이 만난 심정”

산문박의 **한문**

한국화가 서세옥



실화·이기선

원 커도 정진 없으면 소득이 없다

자기욕심보다 남을 위해 소박한 원 세워야

목재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올바른 바람 <願行>

이 누군가 남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새벽 길을 일찍 나서서 오자마자 법당 문을 열어 놓는 것이 노보살이 하는 일이다. 보살의 법명은 보명화(普明華, 67세)이다. 조그만 키에 얼굴에는 곱게 느껴지는 주름살이 짙어 있다. 아마 삶의 연륜이 보살의 얼굴을 이렇게 만든 것이리라. 그러나 눈이나 입가에 항상 잔잔한 미소 가득하다. 노보살의 직업은 청소하는 것이다. 한때 종로의 어느곳에서 일했다고 한다.

법당 청소하는 노보살

그런데 갑자기 부처님을 모신 대학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불연듯 일어났다. 그리하여 한 일주일동안 대학 구내를徘徊하면서 일할 것을 결심하고 책임자를 찾아 나섰더니 한 소장을 만나게 되어 “책임자 일반 나는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찌지요.” “아니 할머니 나이가 맞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이예요.” “그럼 한사람을 꼭 써야 하는데 내일 오시면 되요.”

그래서 노보살은 종로일을 그만두고 대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책임자는 “나이도 연만하고 힘이 부치니 법당청소만 깨끗이 하세요”란 당부만을 해주었다고. 이것이 인연이

로 욕망을 아름답고 깨끗한 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보현보살은 수순증생(隨順衆生)하기를 원으로 삼았다. “나는 모든 중생의 뜻에 따라 그들을 섬기고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하고 스승과 같이 받들며 부처님과 닮았으면 존경하리라.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 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중생을 따르는 보현보살의 원이다. 남을 즐겁게 이롭게 편안하게 하는 원을 세워야 한다.

욕망과 원은 다르다

나 자신만 행복하고 유쾌하게 살려는 것은 욕심인 것이다. 세상은 원과 욕심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욕망을 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욕심이나 욕망은 자기를 위한 마음의 설정이고 원은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의 근원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제 생명을 살지우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위에 살고 있는 남도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 속에 지상한 착이 돌아 날 것이다. 이 착을 보리심이라고 한다. 이 보리심은 원행으로 익어가면 자비행이 태양처럼 땅에 가득할 때 화엄도량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소박하고 알뜰한 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남산이 바라보이는 법당문을 여는 보명화 보살의 가녀린 바람이 새벽 창예자를 기쁘게 하지 않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권재물이나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조그만 구멍으로 비취오는 자비스러운 햇빛이 인간의 마음을 법일케 한다. 법일을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다.

서세옥, 그는 붓을 잡는 것을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와 맞닥뜨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두눈이 화동진만한 커다란 호랑이가 당장에 잡아먹을듯 으르렁거리는데...

“호랑이를 때려 잡느냐, 아니면 곱작없이 잡혀 먹히느냐... 절대절명의 순간이지.”

상복통, 사방이 뿔뿔이 찢어 들어간 그의 작업실에는 그가 늘 추구하는 ‘인간’을 주제로 한 대작 두점이 작업 중에 있다. 일단 붓을 잡으면 그는 전 쟁에 나가 단 한칼에 승부를 내버리는 중세의 무사같아진다. 선을 긋고 풀감을 칠하는 작업이 모두 일회성이다. 생각하며 쥐고 다듬고 고치고 지우고 하는 기법을 단호히 거부한다.

“내가 있다는 존재까지 모두 잊어버리지.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자기 혼자만의 은밀한 작업인데, 내가 그림 그린다는 행위까지 있어 버리게 돼. 그저 완전히 무아의 경지에 빠져 버리는 거지.”

그림 그리는 동안 서세옥은 자신의 자리를 서술이 시퍼렇게 지켜가고자 애를 쓴다. 그때의 눈빛은 용맹정진을 앞두고 있는 선반스님들의 눈빛을 닮는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 덩어리, 졸음과 단조로움과의 싸움, 무참하게 패배할 것만 같은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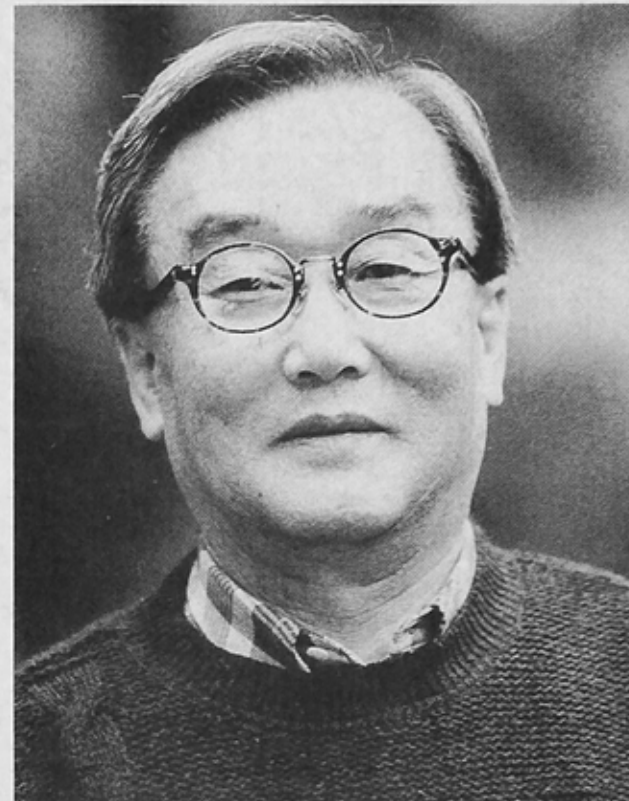
“그림 그릴 때 사뭇 생각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내주면 안되지. 치열한 싸움이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명예라든가 금전이라든가 한 사람든가 이런 것에 마음이 쉴 수가 없다. 그는 이런 것을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꼴이라고 했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 적도 있으신가요?”

“물론 있지. 그림 그리는 40여년이 넘지만 지금도 붓 잡으려면 호랑이를 만나는 심정이지.” 깔깔 웃는다.

그는 작업할 때 권타인 입고 몇시간씩 몰두한다. 온 몸이 땅에 젖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웃이라는 것이 걸척적 거리는 구속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의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변형시키는 인간이 아니라 서로 포용하거나 손을 잡고 어깨동무 하는, 자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동양적 인간이다”



“삼도 예술도 자유를 찾는 여행이죠”

그림 그리고 산책하고 독서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모든 일을 서세옥 교수는 ‘자유롭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표현했다.

예술가란 그 누구보다도 자유인이 아니냐는 반문에 “원래 거미줄 하나 걸쳐 있지 않은 자유인이 우리 인간이야. 어느 틈에 붙어 때가 묻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 많은 밧줄이 공공 뭉쳐 가게 되지.”

문명이 발전하고 삶의 조건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가 보기에 인간은 수 많은 밧줄에 묶여 있는 수형인이다. 그는 창작을 하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내고, 특감지 않은 것을 만들어 낸다는 외에, 자연 그대로 있는 것에서 통찰과 사유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데 의미를 둔다.

서세옥교수의 이러한 자유의식과 기존의 것에 맹종하지 않으려는 기질

은 젊은 시절부터 발휘했다. 서울대 미대 2년, 잣 스쿨에 제1회 국전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화단의 주목을 받은 그는 그 후, 미인도 산수도가 주류를 이루던 동양화계에 충격을 주는 그림을 속속 선보인다. 동양화단의 고무함을 품고 산수를 파괴하며 동양화 추상의 새 경지를 열게 된다.

기성화단에도 도전그룹인 ‘목탑회’가담으로 돌풍을 몰고 온 그는 이후 국전심사위원, 한국미술 이사장, 예총 부회장 등을 맡으며 한국화의 커다란 산봉우리로 떠올랐다. 서울대 미대에서만 40여년간 수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지난 2월 정년퇴임한 그날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것이 정신적 순결성으로, 붓 잡는 기술보다 조형정신의 핵을 일깨워 왔다.

사물의 내재적 의미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무한한 자유 정신에

대해 강조하며 선생과 비슷한 그림이 되는 것을 단호히 경계했다.

그의 거실에는 벽난로를 중심으로 벽 양쪽에 커다란 수목그림 두 점이 걸려 있다. 간결한 점과 선, 그리고 수묵으로 이루어진 이 그림들은 단순하다.

그가 60년대 이후 끊임없이 그림의 주제로 잡아온 인간사리드 중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 얼굴이고, 선은 어찌요 몸통이요 다리다.

“처음에는 나도 사람을 그림 때는 코·입에 머리카락까지 자세하게 묘사했어.” 세심하게 사실적 묘사를 하려고 자세히 보려니 도리어 한가지만 보이더라고 했다. 그런데 같은 대상도 아침에 일어나 보고 저녁에 보고 하니 그저 같은게 아님을 느꼈다고 했다.

그의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변형시키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아니라 자연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인간, 서로 포용하거나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있는, 화합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양적 인간이다.

그의 이러한 작업은 대상이 되는 사물을 관조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다. 모든 결과지를 벗겨버리고 가장 절실한 부분인 속살만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채색이나 형상 등 외적인 요인보다 작가의 정신성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그의 작품들을 두고 평론가들은 지혜·해학이 넘치는 ‘선시(禪詩)의 세계’를 표현했다고 평한다.

“그런데 묘해요. 서명이 들어가면 그림이 완성되는 건데 서명을 딱 미치면 그때부터 그림이 내 것이란 생각이 안드나.”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고 봄의 새싹을 보고 가을 낙엽을 생각해야 하듯 서세옥은 작품에 서명을 마칠 때마다 ‘무소유’란 말을 떠올리곤 한다. 그림 한편에 서명을 하는 순간 그는

열로 비켜난다. 그 비켜난 공간에 감상자가 들어선다.

서세옥교수는 세간에 정평이 나있을 정도로 독서량이 풍부하고 깊다. 그의 관심은 정경진 그림뿐 아니라 종교 문학 사회학 등 제과학에 폭넓게 미쳐 왔으며 국악과 한시에도 정통이라 할 만큼 수준급이다. 원만인 대학도서관에 버금갈만큼 책을 많이 갖고 있는 장서가이기도 하다.

여행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자부할 만큼 수 많은 나라의 많은 것들을 보았다. 화단에 포진해 있는 수많은 제자, 부와 화려한 명성과 경력을 가진 한국화의 거맥 산정 서세옥에 있어 세속인이 부러워 할 만한 것은 모두 성취한 것은 아닌지. 우물같은 질문에 그는 두 손을 펼쳐보인다.

“인 손바닥이예요.”

<이경숙 기자>

北韓에서 完全 번역한 순 한글 해제

八萬大藏經

本社 原本入手
맞춤법 활자체 우리에게 맞게
새롭게 조판하여 出版完了

민족의 혼을 안고 도도히 흐르는 영원불멸의 진리!!

八萬大藏經 수백권의 엄청난 분량 다 읽고 전부 배우기란 쉬운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해제로 된 本書 단 16卷만으로도 八萬大藏經의 內容을 쉽고 간략하게 그 核心을 理解할 수 있는 참으로 보배스러운 今世紀 最高의 번역 佛書입니다.

스님, 佛敎學者, 포교사, 佛子, 先生님, 學生, 文學人, 史學者 심지어 他宗教 聖職者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國寶, 世界的 寶物, 神祕의 八萬大藏經 이제 순 한글로 完譯된 八萬大藏經을 우리들 서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색인부가 있어 보고 싶은 부분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版 洋裝本 각권 400~700쪽)

定價: 350,000원 500秩 特別 割引價(4회×70,000원) 280,000원

販賣元: 文獻 情報 文書布敎事業部 TEL.(02)929-0211~4